환율 10% 오르면 물가는 2.6% 상승

韓銀 '2005년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수출입 경제구조 대외의존도 30% 육박

사교육비 5년만에 4배 급등 … 가계 부담

환율상승이 원유가격 상승보다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5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5년만에 4배로 불어나 학부모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 10% 상승하면 물가 2.62% 올라=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전 산업 평균물가가 2.62%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 효과를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3.95%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2.39%) 등의 순이었다. 이는 공산품 등 제조업의 수입 의존도가 21.5%로 전 산업평균 12.8%에 비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원유 수입가격이 10% 내리면 물가는 0.49%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하락 효과는 원유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석유 및 석탄제품(5.89%)이 가장 컸다.

◇1천원 수출하면 617원 부가가치 창출=수출품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5년 0.617로 1995년 0.698, 2000년 0.634에 이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계수가 0.617이라는 것은 1천 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617원이고 나머지는 해외로 부가가치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국내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786에서 2000년 0.754, 2005년 0.741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0.8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외의존도 여전히 30% 육박=수출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때문에 대외 의존도는 3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총공급에 대한 수출입 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2005년 기준 28.2%로 2000년 29.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24.9%에 비해서는 크게 높고, 일본(14.0%)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5년간 4배 급증=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46.3%)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은 1995년 34.6%에서 2000년 39.4%, 2005년 40.0%로 둔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가운데 교육과 보건 비중은 5.6%로 2000년 4.4%에 비해 늘었다. 이는 가계의 사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민간소비지출을 보면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교육서비스 지출액은 2000년 3조1천853억원에서 2005년 12조3천201억원으로 4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한국 국가신용도 100점 만점 80.2

177국가중 27위 … '양호한 수준'

글로벌 금융전문가 평가 글로벌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 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을 그다지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금융 전문지인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 지(紙)가 최근 실시한 국가별 신용등급 조사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80.2점을 받아 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신용 점수는 외환위기로 지난 97년 71.4점에서 98년 64.4점, 99년 52.7점 등으로 급락했다. 이후 2000년 60점대, 2005년 70점대로 올라섰고 올해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조사는 글로벌 은행과 펀드, 증권사 등의 이코노미스트와 국가신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금융시스템 안정성, 채무 상환력, 수출, 성장률, 재정, 부패.투명성 등 13개 분야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한국은 평가 대상 177개 국가 중 27위였다.

S&P,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높으면서도 이번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그리스와 중국, 아이슬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이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싱가포르 91.9점, 일본 90.6점, 홍콩 84.3점, 대만 83.6점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 감독 기준 완화

금감원, 바젤 II 의무화 시기도 연기 검토

〈자기 자본 비율 협약〉

국민연금 1조4천억어치 은행채 매입 시작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이 완화되고 원화 유동성 위기의 핵심인 은행채 매입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비율 규정을 완화키로 결정했고 ▲국민연금은 발행시장에서 은행채 매입을 시작했으며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조만간 은행채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이 엄격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은행채 발행수요가 줄어 은행채 및 CD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추산 결과, 원화유동성 감독기준 완화로 올해 8월 말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이 1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이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으로 예정된 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 II 의무화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화유동성 위기의 핵심이자 시중금리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은행채 매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날 채권 발행시장에서 1조4천억원 어치의 은행채를 매입했다. /연합뉴스

고속도 휴게소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29일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 상행선에 마련된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여행객들이 사과를 사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장성연합사업단이 공동 운영하는 장터에서는 쌀을 비롯해 나주배·장성사과·단감·호박고구마 등 전남산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20% 값싸게 판매하고 있다. 고속도로 장터는 31일까지 문을 연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고속도 주유소 왜 비싼가 했더니…

'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2006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회원 주유소에 유류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2006년 4월 일부 언론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이 국도 주변 주유소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자 같은 해 6월 정유사 및 한국도로공사와 논의를 거쳐 가격인하기준을 설정했다.

당시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0.3%) 이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공문으로 통지했다.

공정위는 가격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도 설정해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시정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증시 '악성 루머' 전방위 단속

금융당국 합동단속반 가동 …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악성루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기업의 자금난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등 각종 소문으로 인해 증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언론 보도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까지도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악성루머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상장사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증시 악성루머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언론보도·투자정보지와 투자정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 증권사 객장의 루머 유포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점검결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과 관련이 있는 악성루머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기관 검사와 정책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거래소, 협회는 각각 '시장 악성루머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에게 포상키로 했다. /연합뉴스

국세청, 기업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금융시장 안정때까지 … 자금조달 어려운 현실 감안

진행중인 조사는 빠른 시일내에 종결 … 징수 유예도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미뤄진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기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기해주고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국세 환급금의 조기 환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기조사가 유예되는 대신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변칙적 외환거래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유예로 발생한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 엄격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10월중 경상수지 흑자 5억~10억 달러 될듯"

韓銀 전망 한국의 경상수지가 10월에 흑자로 전환되며 그 폭은 5억~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9일 "경상수지는 8월에 47억달러의 적자였으나 10월에는 5억~10억달러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난 25일까지 여행수지는 3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는데, 이는 작년 10월에 11억8천만달러의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월에는 무역수지가 1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달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체의 선박대금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1월과 1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4분기 기준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10월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매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며 1년간 적자규모는 110억 달러 정도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말 韓銀 기준금리 3%까지 떨어질 것"

모건스탠리 전망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국내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년말까지 3%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금융위기가 2001년 IT버블 붕괴기와 2003년 카드사태 때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1.25%포인트 인하해 내년말에는 기준금리가 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발빠른 정책대응은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적적이지만 경제 침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수출보다는 내수둔화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이 최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과 관련해 "내년 1분기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고 경상수지도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환율이 안정세를 보여야 하지만 최근에는 펀더멘탈보다는 시장인식이 외환시장을 좌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비파괴검사원 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31	062-369-0790
㈜삼구개발	한국가스기술공사 호남사업소 가스 배관 점검 및 공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31	042-487-5039
해피버스	[광주/전남]포토플래너/포토샵/상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71-0898
㈜공간창조	현장관리담당자(CAD가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264-0488
㈜제이에스텔레콤	[SK텔레콤]정규직 남/녀 사원(IFU앞)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234-2100
금강서적	도서 입출고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1	062-384-5800
씨엔엠산업개발㈜	기업 회계, 출납업무(경리직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1/03	062-416-1313
(주)유림산업	생산직(진공성형,조립)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03	062-953-4702
㈜크라운제과 동광주영업소	총무 (남)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4	062-959-0853
햇살 가득한 집	그래픽(십자수도안) 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5	062-527-7935
킴벌리솔루션	경리, 회계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5	062-946-8200
유니온스틸	[광주]대졸 신입사원(사무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5	02-2222-0052
첨단실버병원	사회복지사 1, 2급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7	062-601-213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